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바르게 보시다 [正見]!

교황 “무기를 내려 놓으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삼종기도 순례를 통해 '우리 눈앞에서 낱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과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잔학행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교황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잃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중의 선익'을 우선하며 무기를 내려 놓으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루카 1.37)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을 떠올리며 “우리 눈앞에서 낱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과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잔학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초대했다. 교황은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지, 누군가에 대한 승리라거나 다른 누군가를 거슬러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나요? 그렇게 하면 잃기만 할 뿐입니다.”라며 전쟁의 폐해를 역설했다. 교황은 이어 “왜 그분께서 승리하시도록 두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 평화가 다스리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라며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떠올렸다.

교황은 이어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절을 기해 휴전에 들어갑시다. 휴전은 재무장과 전투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휴전입니다. 민중의 선익을 위해 가까이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는 진정한 협상을 통해 평화로 이어지는 휴전 말입니다.”라며 민중의 선익을 우선하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잔해더미에 깃발을 꽂을 자의 승리란 도대체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자.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자!”고 청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 설하신 첫 대중 법문은 중생으로서 누구나 겪는 고통, 즉 고성제(苦聖諦),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 집성제(集聖諦), 고통의 소멸을 설하는 멸성제(滅聖諦),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하는 도성제(道聖諦)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의 4성제(四聖諦)입니다.

정견(正見)은 바로 이 4성제의 네 번째인 도성제 즉 8경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더러운 법 가까이 하지 말고 함부로 굴거나 게으르지 말며 바르지 않은 견해를 익히지 말지니 그것들은 이 세상을 자라게 하노라. 비록 이 세상에 살더라도 바른 견해 더욱 늘이면 백천 번 태어나더라도 결코 악취(惡趣)에는 떨어지지 않느니라.” 『잡아함경(雜阿含經)』 제 28권 788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 즉 우리 범부들이 더러운 법을 가까이 하고, 함부로 굴거나 게으르게 살며, 바르지 않은 견해를 바른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 자체도 알지 못함으로써 바르지 않은 견해를 익히게 되면 그 결과가 이 세상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니 이 세상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자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통에 가득 차서 매우 힘들면서도, 그 고통을 참아 내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바른 견해 즉 정견을 더욱 늘이면 백천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결코 나쁜 세상인 악취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바른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속의 바른 견해로 번뇌(漏)와 집착(取)이 있고 선취(善趣)로 향하게 한



다. 다른 하나는 세속을 벗어난 성현의 견해로 번뇌와 집착이 없고 괴로움을 바르게 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씀 역시 『잡아함경』 제28권 중 785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속의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번뇌와 집착이 있고 선취로 향하게 하는 세속의 바른 견해란 어떤 것인가? 보시(布施)도 있고, 주장(說)도 있으며, 재(齎)도 있고, 선행과 악행도 있으며, 선악행에 대한 과보(果報)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있으며, 부모도 있고 중생의 태어남도 있으며, 세상에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게 된 아라한도 있음을 아는 것을 일러 세속의 바른 견해라 한다.” 역시 잡아함 제28권 중 785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바른 견해는 구분하자면 보시, 주장, 재, 선행, 악행이 있다고 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 즉 업(業)의 소유자로서의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고, 선악행에 대한 과보도 있다고 한 말씀은 업을 모태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이의 올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바른 견해와 성스

러운 바른 견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바른 견해는 비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선취로 향하게 하지만 번뇌와 집착이 있는 바른 견해이고, 성스러운 바른 견해는 번뇌와 집착이 없으며, 괴로움을 바르게 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간직한 다음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골똘히 사유하라(獨一靜處專精思惟)”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리 몸이 세속에 있으므로 처음에는 세속적인 바른 견해라도 얻어서 보시도 행하고, 재도 베풀며, 어른을 공경하며, 선행도 베풀고 아라한 같은 성현이 있음을 굳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스러운 바른 견해인 4성제를 하나하나 뜯어 놓고 바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그 이해에 따라 생긴 지견(知見)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하나 자기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서 자기 안에 그릇된 소견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성스러운 바른 견해의 수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 법현 스님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